

## 고양시로 떠나는 야간관광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오는 9월 18일부터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관광이 시작된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경기도의 역사·문화·생태·평화 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양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갤러리,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역사의 발자취 체험과 평화를 염원하는 야간도보여행 프로그램인 '행주 달빛 야행'도 진행된다. 예술을 품은 행주의 밤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박서희(고양시 관광과 청년인턴)



행주산성의 야경



대첩문 포토존

### 빛을 되찾은 행주의 밤

행주마을은 뒤쪽에 덕양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과거에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규제가 행해지면서 옛 과거 모습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행주산성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화유적지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다. 이에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야간관광을 통해 행주동 영광의 순간들을 재현하고자 한다.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빛으로 물들인 야간관광을 통해 과거 행주의 정취를 느껴보자.

### 행주 설화길, 숨겨진 이야기

행주산성에는 옛날부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행주치마 이야기부터 권율 장군과 관련된 설화인 '양천강 보물상자 이야기', 권율 장군과 이항복의 일화를 그린 '권철대감과 감나무 설화'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다양한 설화들을 한데 모아 설화길을 조성하였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옛 추억을 상기시키는 설화길을 걷다 보면 고양에 대한 애정이 절로 피어난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행주의 옛이야기를 즐겨보자.

### 예술이 빛나는 밤

#### ❶ 화려한 융복합 미디어와의 향연, 개막공연

오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행주나루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한 개막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행주 '웅어' 설화인

<'금원'과 '란사'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공연의 핵심은 설화를 표현한 무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다. 웅어는 행주나루에서 잡아 임금님 수라상에만 오르던 귀한 물고기였다. 이에 얽힌 어부소년 '금원'과 양반집 구수 '란사'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에 담긴 감성과 새로운 기술이 빛낸 환상적인 무대를 즐기며 낭만을 느껴보자.

개막식 2021. 9. 25.(토)

행사장소 행주산성 대첩문

주요 프로그램 <'금원'과 '란사'의 사랑 이야기>\*

\* 2021년 경기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선정작 / ㈜엠티더비컴 퍼티와 'MBC C&' 합작품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❷ 황홀한 밤의 세계로 빠져드는 행주갤러리&행호 음악회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의 문화예술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전 달하고,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행주갤러리', '행호 음악회' 등을 기획했다. 행사기간 동안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그림 및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국악공연부터 전자바이올린 연주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진 예술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소원돌멩이를 들고 있는 청년 인턴들

###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관광

· 9. 18.~11. 14.(매주 월요일 제외) 빛의 거리 야간개장(오후 6:00~10:00), 행주 포토존

· 9. 18.~10. 17.(매주 주말) 빛의 거리 야간개장(오후 6:00~10:00), 버스킹 공연, 소원 돌멩이 체험, 달빛 야행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행사 및 프로그램 일정 변동 가능